



즉시 배포용: 9/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정지 당하거나” 노동절 단속의 결과 발표

20일간의 단속 및 교육 기간에 뉴욕주 경찰이 750여명을 체포하고 수 만장의 티켓 발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음주 또는 약물 저해 운전자에 의해 야기되는 사망 및 부상을 크게 줄일 목적으로 시행된 전국적인 20일간의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정지 당하거나’ 단속 동안에 뉴욕주 경찰이 도취 운전한 769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에 의해 조율된 이 단속 동안에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들은 음주 또는 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산만,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및 “양보” 법률 미준수 운전자도 겨냥하였습니다.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합니다: 뉴욕주는 음주 운전과 무모한 운전에 대해 무관용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도로에서 위험 운전자를 몰아내고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주 경찰과 법집행 파트너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 경찰은 8월 21일 ~ 9월 7일 단속 기간 사이 769건의 DWI 체포 중에서 노동절 연휴 동안만 219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663명이 DWI로 체포되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운전하라” 캠페인 동안에 주 경찰관들은 또한 47,359장의 티켓을 발부하여 2014년의 46,500장보다 많았습니다: 18,660장은 과속, 1,613장은 산만 운전, 2,522장은 아동 구속 및 안전벨트 위반, 556장은 “양보” 미준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경찰관들은 20일 기간 동안 작년의 2,940건에 비해 총 2,973건의 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 중에서 857명이 부상하고 2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장 **Joseph A. D'Ami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해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타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을 주 경찰관들은 관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 및 지역 법집행 파트너들함께 이러한 단속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것이며 저해 운전자들을 구속하여 모든 통행자들을 위해 우리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 경찰	지역	DWI 체포	과속	부주의 운전	아동	양보	합계
------	----	--------	----	--------	----	----	----

		(사람 수)			구속장치/ 시트벨트		티켓 수 (기타 위반 포함)
A	뉴욕주 서부 지역	59	2,107	182	302	40	4,973
B	North Country	52	1,192	76	140	14	3,458
C	Southern Tier	39	1,540	63	117	79	3,478
D	뉴욕주 중부 지역	81	1,644	197	248	57	4,656
E	Finger Lakes	76	2,448	255	416	53	6,771
F	Upper Hudson Valley	144	1,456	134	367	81	4,653
G	주도 지역	87	1,842	160	250	46	4,569
K	Lower Hudson Valley	94	1,561	143	179	63	3,937
L	Long Island	68	1,065	198	209	12	3,537
T	NYS Thruway	69	3,805	205	294	111	7,327

[맨정신으로 운전하거나 정지 당하거나](#) 노동절 단속은 8월 20일 Buffalo의 기자회견에서 [개시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혈중 알코올 수치\(BAC\) 0.08%](#)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한계를 말하지만, 많은 위반자들이 그보다 거의 두 배 수준에서 체포되고, 주 전체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평균 혈중 알코올 수치(BAC)는 0.14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에 기여한 유일한 물질은 음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하이웨이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사망의 약 18%에서 알코올 이외의 마리화나 및 코카인 같은 마약이 요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분명히 밝혔듯이 도취 또는 저해 운전은 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차량부(DMV) 차장 **Terri Egan**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민들이 이러한 티켓 및 체포의 수를 보고 메시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저해 운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경력, 가족 및 생명을 망치기 때문에 무릅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이 2014년 11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15년 동안 DWI 또는 DWAI 혐의로 3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D급 중죄 처분에 최고 벌금형 10,000달러에 감옥에서 7년 동안 구금됩니다.

뉴욕주의 반저해 운전 단속 캠페인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와 참여 카운티들이 저해 운전 위반으로 징수된 모든 벌금을 돌려받을 자격을 갖는 종합 자조 재정 하이웨이 안전 프로그램인 STOP-DWI에 의해 보조됩니다.

음주 운전 및 교통 안전 수칙에 대한 위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와 주정부 산하 교통안전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추가적인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